

공무원 근속기간, 민간의 약 4배

이른바 '평생직장'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의 근속기간이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보다 4배가량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공공 부문 일자리라도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의 일자리보다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 공공 부문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1.4년으로 1년 전(11.3년)보다 소폭 늘었다. 같은해 민간 부문 임금 근로 일자리의 평균 근속기간은 4.0년으로 이의 3배에 달한다.

근속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가 110만2000개로 전체 공공 일자리(241만1000개)의 45.7%를 차지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이 비율은 11.1%에 그친다. 근속기간이 3년에 못 미치는 일자리는 75만6000개로 전체의 31.3%를 차지했지만, 민간 부문(65.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공공 부문 종사자 중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등에 가입한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2년으로 더 길었다. 이 중 63.0%(80만9000개)가 근속기간이 10년을 넘었다.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의 경우 이 비율은 11.8%(6만9000개)에 그쳤다. 비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4.0년으로 민간과 같은 수준이었다. 근속기간이 3년도 채 안 되는 일자리가 38만1000개로 전체의 65.3%를 차지했다.

남자는 근속기간이 20년을 넘는 일자리가 38만개(전체의 28.8%)로 비중이 가장 컸던 반면, 여자는 3년 미만인 일자리(38만9000개·35.7%)의 비중이 가장 컸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여성의 경우 남성성에 비해 무기계약직·기간제 일자리의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1년 전에 이어 2년째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총 207만5000개로 전체의 86.0%였다. 지속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뜻한다. 민간 부문 1696만5000개 일자리 중 지속 일자리는 1072만7000개로 전체의 63.2%에 그친다.

반면 아직 또는 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됐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일자리는 33만6000개(14.0%)로 조사됐다. 민간 부문에서 이 비율은 36.8%로 공공 부문의 2배가 넘었다.

지속 일자리의 대부분인 177만2000개가 일반 정부에 속했다. 지방 정부가 106만4000개, 중앙 정부가 68만6000개, 사회보장기금이 3만2000개였다. 공기업 지속 일자리는 30만3000개로 비금융공기업(27만

통계청, '2017년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 발표 공무원 평균 근속기간 15.2년...민간 4.0년 불과

9000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원 중에선 93.7%가 지속 일자리였고 비공무원은 이 비율이 70.2%였다.

신규 채용 일자리는 일반 정부에서 29만1000개(전체의 86.5%), 공기업에서 4만5000개(13.5%)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 정부 중에선 지방 정

부에서 19만7000개, 중앙 정부에서 8만9000개가 창출됐다. 공기업 중에선 비금융공기업에서 4만8000개 일자리가 생겼다.

지속 일자리의 경우 남자(56.4%)의 비중이 여자(43.6%)보다 높았지만 신규 채용 일자리는 여자(53.3%)의 비중이 남자(46.7%)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속 일자리는 40대(31.6%), 30대(27.9%), 50대(24.7%) 등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 신규 채용 일자리는 29세 이하가 35.7%로 가장 많았다.

공공 부문 일자리 통계는 2017년 12월 기준 공공 부문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료·소득세·직역연금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작성된다. 지난 2017년 개발돼 2015년 통계부터 공

뉴스스



봄비 머금은 흥매화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 경남 함양군 삼림공원 인근에 핀 흥매화가 봄비를 머금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승진·영전 축하선물 신분상 불이익"

광주시교육청이 내부 회의를 거쳐 일명 '김영란법'보다 강화된 청렴기준을 교육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만~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도 승진 또는 진보 등 인사발령을 이유로 주고 받을 때는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인사 발령 때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결정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19일 청렴도 제고 관련 인사절 관행적 금품(떡, 화분 등) 수수금지라는 공문을 전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직속기관에 배

포했다. 공문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광주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과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들면서 "각급 기관과 학교에선 승진·진보 등 인사발령 시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수수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에게 공갈 및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인사절인 3월1일 전후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들어오는 관행적 금품이 있으면 반려하라"고 덧붙이면서 "관행적 금품 수수 적발 시 신분상 처분 등 불이익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하거나 인제 적소 배치를 위해 이동했으면 열심히 일할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작더라도 인사 이동을 이유로 선물들

을 받는다면 그런 모습이 학부모와 학생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교육자로서 학생만을 바라고 나아가면 된다"며 "시민들이 선물받는 공직자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희국 교육감은 첫 취임 다음해인 2011년 1월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같은 해 3월엔 '새 학기 촛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촛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

또 학교 공사비리, 사학 채용 비리 근절에 노력해 학교 공사 관계자 청렴연수와 소통의 시간을 시행하고 사립학교 공동체용을 이끌어 내는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설과 추석 등 명절에 교육청 내부에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美 국가맹세 거부하고 교사와 언쟁 학생 체포

교실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해 교사와 논쟁을 벌이던 미국 11세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경찰은 지난 4일 로턴 차일스 중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거부한 뒤 수업 방해로 한 이유로 남학생(11세)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생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하지 않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미국 국기는 인종차별적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 출신인 이 학생은 이어 국가가 왜 흑인들에게 교육적인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교사는 교무과에 전화를 했고 계속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행정관과 교직원들이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학생이) 이후 교실을 나온 뒤 또다른 말쑥을 일으켰고 사무실로 옮겨지면서 또 다른 위협을 가했다"며 "학교 기능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청소년보호센터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우리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동시에 모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평화로운 수업 분위기를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 교사가 표현의 자유를 강요했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보장된다" "학교에서 흑인 학생들에 대한 괴담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플로리다 경찰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아니라 수업 방해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업을 담당하던 대리 교사는 서면 진술에서 학생 행동 규정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몰랐다고 말했다.

콜롬비아경찰 2명 베네수엘라 국경서 피살

콜롬비아의 경찰관 2명이 1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국경으로 통하는 교량 위에서 총격범들에게 살해당했다고 경찰 당국이 발표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사이를 흐르는 강가를 걷고 있던 무장한 2명의 남성이 호세 안토니오 파에스 국경 교량의 세관인민국 검문소로 다가가 근무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총을 발사했다.

사망한 경찰관은 제이슨 베지리노(26)와 오스카 곤살레스(28)라고 경찰국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라우카주의 리카르도 알바라도 주지사는 아직 살인용의자가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곳 이라우카주 국경지대는 콜롬비아 반군단체 '민중해방군'을 비롯한 수많은 반군과 범죄자들의 활동 본거지가 되어온 곳이다.

멕시코, 섬교도소 '이슬라 마리아' 폐쇄

멕시코 정부는 영화 '베베용'에 등장하는 것 같은 먼 바다의 식민지 섬에 건설했던 악명높은 섬 교도소를 가운데 마지막 남은 '이슬라 마리아' 교도소를 곧 폐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이 교도소에 남아있는 69명의 재소자 가운데 3분의 2는 다른 곳으로 옮겨 수용하고 약 200명은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섬은 멕시코의 태평양 해안 나야리트에서 해상으로 110km 떨어진 곳에 있는 4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이다. 그 중 이 곳 한 개의 섬을 제외하고는 무인도들이며, 감옥으로 사용된 섬은 앞으로 문화 및 환경 교육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1905년 이 곳 마리아 마드레 섬에 설립된 교도소는 오랜 세월동안 재소자들에 대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대우로 악명을 떨쳐왔다. 파나마가 2004년 이슬라 코이바 섬의 교도소를 폐쇄한 이후로는 남미의 마지막 남은 섬교도소로도 유명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 곳에 세워진 문화센터의 이름은 이 곳에서 수감된 채 유명한 소설 '물의 담벽'(Walls of Water)을 썼던 소설가 호세 레우엘타스의 이름을 붙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도르는 2003년에도 무려 800명을 수용하고 있던 이 섬교도소에 대해 "100년이 넘게 이어진 억압과 형벌, 고문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